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논 문 개 요

예술가는 자신의 직, 간접적 경험을 조형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그 표현된 작품은 인간에게 다양한 감성을 불어넣어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간은 그 자극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통해 경험한 생명과 모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이 조형적인 언어로 표출되었다. 임신으로 인하여 한 몸에 자리한 새로운 생명의 경외감은 이후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 모성으로서의 본능을 강하게 느끼게 했고 이러한 시각은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모성에 대한 심상은 여성의 신체를 통하여 유기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실제 신체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본인의 시각으로 단순화시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 작품의 주제와 소재는 석재라는 재료를 통하여 돌의 덩어리감과 무게감, 세부묘사 등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모성에의 심상이 작품화되는 과정을 현대작가들의 작품과 본인 작품의 형태적인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 앞으로의 조형적인 표현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설정의 배경과 형태의 연구 및 개별 작품의 분석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통한 주제설정에의 견해로 모성이 작품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본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본론 1장에서는 모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 문헌을 통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모성과 그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헨리무어(Henry Moore 1898~1986)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의 작품으로 현조각사에서 모성을 표현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본인작품의 표현방식을 형태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석사청구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표현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세계와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작품 형성의 배경 ····· 3

1) 모성(母性)의 체험 ····· 3

2) 시대별 모성의 표현 ····· 5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 8

3. 작 품 분 석 ····· 13

Ⅲ. 결 론 ····· 26

참고문헌

도판목록

도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나와 또 다른 나Ⅰ, 300×400×350mm, 대리석, 2007 ····· 13

【작품2】 산도(産道), 600×280×240mm, 대리석, 2007 ····· 16

【작품3】 나와 또 다른 나Ⅱ, 120×320×160mm, 대리석, 2007 ····· 19

【작품4】 다시 일어서자, 220×300×190mm 18x20x17cm, 대리석, 2005, 2007 ····· 21

【작품5】 나와 또 다른 나의 여정, 480×350×20mm, 대리석, 2007 ···· 24

Ⅰ. 서 론

인간의 본능 중에 '모성(母性)'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미술사에서 모성의 표현은 주된 주제로 자리하고 있다. 모성관은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변천 되 왔으며 미술사에 있어 모성의 의미와 그를 표현한 작품은 시대의 사회성에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본인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으로서 모성을 경험하고 이를 작품화 하였다.

여성의 몸을 통해 나타난 한 생명과 또 그 생명을 통해서 본인에 내재한 모성 본능과 나를 인식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의 경험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확장되어 가며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작품으로 표출되어졌다. 본인에게 모성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통한 인간에의 사랑이며 정신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지적 경험을 주는 중요한 삶의 과정이었다.

본인은 모성의 이미지로 인체를 은유적으로 변형하여 조형적인 언어로 작품화했으며 이 같은 배경으로 나타난 형태와 생명의 시각적인 표현에 대해 분석하고 더 나은 조형세계로의 확장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로는 모체에 있던 태아의 생명력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 본인의 석사청구전의 작품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본인 작품의 표현방법과 그에 따른 형상성을 연구하고자 시대적으로 모성을 다루는 표현을 살펴보고 이에 헨리무어(Henry Moore)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을 통해 현대의 모

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인작품의 배경인 모성을 통해 나타난 심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형태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본 론

1. 작품 형성의 배경

1) 모성(母性)의 체험

모성(母性)은 주로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출산·수유의 생물학적 요소, 양육이라는 사회적 역할의 요소, 그리고 이미지 적이고 가치적인 요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모성론의 출발점은 모성이 임신·출산·수유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데 있다.[1] 따라서 모성은 생물학적인 성(sex)과 문화적인 성(gender)을 동시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모성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만큼 한정 짓기 어렵다. 학문은 모성본능이나 양육행위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만을 가질 뿐 실생활의 체험 속에서 미세한 감정이나 행위를 포착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모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모성은 일차적으로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생물적인 재생산과 관련된 행위와 성향을 말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매우 복잡한 담론의 망 속에 위치하고 있다. 어머니는 물리적인 지시대상을 말할 뿐 아니라 담론과 경험 그리고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차원을

1) 이연정,「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여성과 사회』,1995,6호

갖는다.[2)]

본 고에서는 본인 작품에 바탕이 되는 생명을 잉태하고 육아에 관한 어머니로서의 모성본능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인간은 모두 여성에게서 태어난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여러 달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이 경험의 자취를 가지고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모성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는 경험이상의 무엇을 알려하지 않으며, 단지 '아름다운 것', 꼭 그래야 하는 당위성만을 가지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등과 같은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만을 갖고 있다.

본인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은 모성을 경험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꼈던 모성에 대한 의미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모성의 주체가 되며 이러한 삶의 변화에 있어서 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에의 경이로움을 갖게 했고 정신적으로는 생소했던 '어머니'라는 단어가 육아를 통해서 본인 삶의 큰 의미로 다가왔다.

모성은 단지 아이를 출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으로 나와 아이의 삶을 연결짓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모성의 시대적인 표현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현대조각에서는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경희,「한국 현대소설의 모성성 연구」, 조선대학교 국어국문과, 2005, p25.

2) 시대별 모성의 표현

모성관은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모성을 표현하는 모성상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요소와 작용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성신체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다산과 풍요로움을 염원했던 원시의 모성표현에서는 여성이 부족의 존속을 책임지는 모계중심의 사회였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뷜렌도르프에서 발견된 '뷜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도판1)상을 들 수 있는데, 이 조각상은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다산의 상징으로 풍만한 신체를 가진 여인으로 제작되었다는 의견에서 더 나아가 임신한 자신의 몸을 재현하고자 했던 여인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장되게 만든 가슴과 몸통은 임신 중에 변해가는 여체의 몸을 표현한 것으로 일종의 산부인과적 기능도 수행했으리라는 것이다.[3)]

중세에는 기독교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모성은 숭배의 대상이 된다. 중세말기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난 '피에타(Pieta)'(도판2)상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기독교미술이 허용하는 규율과 형식에 따라 대자연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성모(聖母)로서의 어머니를 조각으로 만들어내는데, 모성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로서가 아닌 아름다움과 비례에 치중하는 표현이 성모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르네상스에오면 투시법과 인체해부학의 발달로 보다 사실적이고 이상적인 인체표현이 가능해지면서 현실감과 생동감이 성모상에 표현되어졌다.

---

3) Flynn, Tom, 김애현 譯,「조각에 나타난 몸」, 예경, 2000, p22.

현대에 오면 모성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했던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의식으로 만들어진 어머니가 아니며 어머니상(像)으로서 더 이상 여성에게 그 어머니이길 강요하지 않는다.[4)]

현대 조각에서 모자상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다수의 모자상을 제작한 헨리무어와 루이스 부르조아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헨리무어는(Henry Moore) “어떤 형태를 만들면 늘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을 받는다.”[5)]고 말한다. 그의 모자상에서 보이는 구멍(Hole)은 모체의 자궁에 관한 은유이자 생명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추상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를 이루는 조형적 요소로 해석되어진다.[6)](도판3) 작품의 외형적인 요소인 덩치가 큰 엄마의 신체는 체구가 컸던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되어 작품에 표현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7)] 이같이 헨리무어의 모자상에서는 시각적이면서 심리적 체험이 상상력으로 표현된 특징을 볼 수 있다.

헨리무어의 작품에서 가장 큰 주제는 휴머니즘이며 모자상으로 표현된 것은 모성이다.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아이와 어머니의 상을 통해서 표현되어졌고 이것이 다수의 모자상으로 그의 작품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의 유년의 기억 속에서 모성애와 종군화가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를 휴머니즘으로 이끌었으며 모성애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

---

4) 김경희,「조각을 통한 공포와 복원의 힘으로서의 모성연구」, 홍익대학교 조소과, 2007, p28

5) Wilkinson, Alan, 「Henry moore Writing and conversation」, London: Lund Humphires, 2002, p.32.

6) 앞의 논문, p21

7) 앞의 논문, p23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에서 모성은 그녀의 초기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다. 부르주아의 초기드로잉에는 후기 작품인 모체(Matrix)또는 자궁(Womb)의 이미지가 나타난다.[8] 초기 드로잉들은 출산 후 보호하려는 모성본능을 상징한 것으로 이후 조각 작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한다. <무제>(도판4)는 출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자궁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머리가 나오는 이 드로잉은 두개의 분열되어 역전된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9] 이후 세 점의 모자상 <한다 I Do>, <하지 않는다 I Undo>, <다시 한다 I Redo>(도판5)은 <나는 한다>의 아이를 안고 있는 평안한 모습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채는 아이를 외면한 채 바닥에 젖을 흘리고 있는 냉혹한 모성, 즉 폭력과 절망의 관계를 의미하며 <다시 한다>에서 탯줄로 이어진 엄마와 아이는 출생 후에도 분리되지 않는 모자관계를 확인시킨다. <나는 한다>의 연작은 모자관계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다. 또한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작가로서의 삶에서 다시 한번 모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작품으로<암여우 She-Fox>(도판6)와 <거미(마망)Spider(1996)>(도판7)이 있다.

작품<거미>는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다. 어릴 적 가계를 위해 실을 짰던 성실한 어머니의 기억에서 거미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위협적인 커다란 크기로 인해 두려운 어머니를 생산해 내지만, 실상은 유년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정신적인 폭력성과 상징계 안에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무의식적인 힘으로 이 힘을 예술행위로 발산시킨다.[10]

---

8) Marie-Laure Bernac, Louise Brougeois (Flammarion, 1996)p14.

9) Marie-Laure Bernac, Louise Brougeois (Flammarion,1996),p.43.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은 어떤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 여기서는 부르주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나타난 모성을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한 것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녀의 많은 작품들은 사실적인 묘사에 의해서가 아닌 심리적인 암시를 통해 때로는 과장되고 단순화되어 은유적인 표현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르주아의 작품은 그녀의 자전적인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젠더를 초월한 보다 인간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본인 작품의 형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 부분들로 나타난다. 인체의 내부 '자궁'과 '산도'는 여성에게만 존재하며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경험한 생명의 신비함과 산고의 고통이 모성을 인식하며 작품으로 표현되어졌다. 즉, 자궁을 단순화시켜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형상으로 그 안의 공간을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표현하였다.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들어있는 공간, 즉 자궁은 아이가 사는 공간이며 본인이 표현한 자궁 또한 10개월간 아이가 자라고 보호받고 놀이하고 꿈꾸는 공간이며 아이의 집이다. 바슐라르의 표현을 더하면, '집은 최초의 세계이며, 하나의 우주라고 명명한다. 집은 몽상을 시켜주고 몽상하는 이를 보호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꿈꾸게 하는 곳'이라 설명했다.[11]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최초의 자신의 집(家)인 공간에서 생각하

---

10) 앞의 논문pp.74-75

1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譯,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p77-80.

고 움직인다. 본인 작품은 자궁의 비가시적인 형태를 구상해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본인은 이러한 공간을 생명 그 자체로 보았다. 이런 본인의 구상은 팽창된 자궁의 형태에서 튀어나온 돌기들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듯한 유기체의 형태로 드러났다.

유기체는 완전히 평평한 표면을 가지며 날카로운 각은 없다. 살아있는 형태이며, 그것은 결정체와는 다른 것이다. 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기체의 형태는 과정의 결과이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12)]

모체내의 태아와 그 외관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기적 형상은 본인작품에서 중요한 소재이며 이것은 모체가 총체적 생명활동의 근원지로서의 의미 외에도, 내면과 외부세계를 표현하고픈 심리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그 내밀한 공간의 표현은 생명감 외에도 계속 변화하는 본인 작품의 표현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클레는 '자연의 태 속이나 창조의 대지 속을 찾아가고자 하는 여로에서 느낀 것들이 적합한 예술적 기교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가시적 형태로 나타났을 때 매우 진지한 의미를 갖게 된다.'[13)]고 했다. 예술적 상상의 힘은 예술가로 하여금 정신적 생명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외화 하여 그것에 적극적 형태를 부여하게 한다. 본인은 경험을 통해 생명을 근간으로 하여 이 형태를 작품에서 유기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자궁과 산도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또한 이 유기체의 표현은 본인의 작품이 완성된 하나의 결정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라는 의미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기적인 만삭의 자궁형태는 팽창으로 인해 둥글고 단단한 느

12) 강만식外4명, 「현대생물학」,교학연구사, 1988, pp2-3.

13) A.jaffe, 이희숙譯 「예술과 상징」,열화당, 1981, p89.

낌을 주며 커다란 볼륨감을 형성하였다.

【작품2 산도】 에서 '산도(产道)'는 분만 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될 때 지나는 통로이다. 자궁경관 및 질(膣)이지만 분만을 할 때 이것들은 여러 모로 변형된다.[14]

본인은 아이가 나오는 통로로서 이 작품을 모체와 바깥세상과의 사이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 공간은 관(管)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했고 통로의 하반부는 이제 막 나오려는 아이의 머리를 표현하여 긴장감을 주고자 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자궁과 산도의 형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성 신체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며 이는 본인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단순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신체는 재현의 대상에서 시작하여 직접적으로 도구화하거나 그것의 행위와 과정, 행위의 상징까지도 담아내는 등 끊임없이 표현의 도구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상이 갖는 구성요소의 생략과 축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조각에서의 단순화란 단순한 형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물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를 생략하는 필연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현대의 신체는 더 이상 정확한 비례를 통한 아름다움이나 사실성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며 살아있는 환경 속의 신체, 순간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 미의 교칙에 저항하는 신체가 탄생된다. 말하자면, 알 수 있으며 친숙한 신체 대신에 해체되어 조각난 신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신체가 탄생한 것이다.[15] 이같이 미술 속에 등장하는 신체는 더욱 사실주의적 외관을 상실해 가는 경향[16]을 보이고 있다.

---

14) 네이버 백과사전

15) 이열,「신체를 통한 자아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2002, pp.12-13.

【작품3】에서는 끊임없이 아이 생각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단순화시켰고 두상에 박혀있는 아이의 직접적인 표현은 본인의 의식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부조로 표현된 【작품5 나와 또 다른 나의 여정】은 네모난 형태 속에서 틀에 맞춰진 여성의 삶을 대변하였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에 따른 육아는 한국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본인 또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육아의 도움을 받았다. 이 안에서 나와 나의 딸아이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 여성이라는 성의 공통점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의 나 자신의 모습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연속과 반복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서양화의 데칼코마니 기법을 연상하게 했다. 한쪽에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반으로 접어 압착했다가 떼어내면 반대쪽에 똑같은 형상이 나오는 이 기법은 똑같은 현상에 반복을 준다는 표현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인은 이러한 근거로 형태적 접근방법을 석재라는 재료에서 찾고자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는 조각하는 게 아니다. 신이 돌 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형상을 끄집어 낼 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돌 내부에 가진 형태를 마음의 소리로 들었으며, 그 속에 숨겨진 유기체적 본질에 접근하고자 함이다. 본인 작품의 인체의 부분을 통한 심상의 표현 또한 이미 그 안에 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돌에서 끄집어낸 형상이라고 하겠다.

---

16) 이수균,「몸과 미술의 역사」,『몸과 미술』,이대기호학연구소 엮음, 이화여대출판부,1999,pp.8-13

돌이 가진 덩어리(mass)와 볼륨감을 살려 아이의 집이라는 자궁의 유기적인 표현을 가져왔고 이제 막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려는 태아의 모습을 돌 형태 안에서 뽑아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인은 이 형태를 드러내는데 있어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거칠거나 잔정질, 또 표면에 광을 내는 등 정확한 표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정확하게 그 표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정질 했던 부분을 다시 연마하여 매끈하게 표현하기도 했고 반대로 광을 내어 부드럽게 연마했던 부분을 다시 정질로 마무리 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돌을 깎아내는 과정 못지않게 마무리하는 과정 또한 장시간과 노동이 뒷받침 되어야 했다. 이렇게 돌이라는 재료는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가진 재료가 아니며 쏟아 부은 노력만큼 그 완성도를 더해가는 재료로 이것을 돌이가진 진실성으로 두고자 한다.
또한 돌의 특성 중 견고함과 무게감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이것은 본인 작품의 재료로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 돌은 이 무게감과 단단함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완성도가 더해가며 이러한 돌 작업을 통해서 실제 육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칸딘스키는 흰색을 무(无)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색'[17]이라고 칭한 바 있다. 본인의 작품은 대부분 여산 대리석으로 흰색에 가까운 연회색을 띄고 있다. 본인은 생명과 모성의 심상을 표현함에 있어 결정 지워지고 항구적(恒久的)인 형태가 아니라 생동하고 상호 소통하여 변화하는 과정의 형태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무채색의 흰 돌을 사용하므로서 색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배재하고 작품의 내면에 더욱 충실히 다가가고자 하였다.

17) 칸딘스키, 권영필 譯,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p94.

3. 작 품 분 석

【작품1】 나와 또 다른 나Ⅰ, 300×400×350mm, 대리석, 2007

【작품1】 나와 또 다른 나 I

크　　기 : 300×400×350mm
재　　료 : 대리석
제작년도 : 2007
제작방법 : 석재를 절단한 후 에어툴과 핸드밀러로 음각하고 손사포로 마감처리 하였다.

이 작품은 만삭이 된 뱃속, 즉 자궁을 단순화시켜 표현하고 내부의 아이의 모습(발가락, 머리, 엉덩이)을 볼록한 양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궁 속에 존재하는 아이에 대한 표현은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보거나 만져보면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의 약한 양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뱃속에서의 움직임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 표현되어진 것이며 형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기보다 은유적으로 표현 하였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에의 작은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한 본인의 의도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큰 형태는 유기체적으로 볼륨감을 가진 덩어리로 나타났다.

아이가 태내에 있던 만삭의 순간, 즉 모체에 함께 존재했을 때를 그려보았다. 육체적으로 만삭의 배는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변화되기도 하는 등,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에의 신비함을 느끼게 했다.

어머니의 뱃속 안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몇 배로 불어난 자궁에는 모체의 양분으로 자라난 태아가 있다. 아이는 자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모체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내안에 존재했던 또 다른 생명의 움직임은 출산 후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의 아이와 나를 표현하는 조형작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작품2】 산도(産道), 600×280×240mm, 대리석 ,2007

【작품2】 산도(産道)

크　　기 : 600×280×240mm
재　　료 : 대리석
제작연도 : 2007
제작기법 : 1) 다이아몬드 톱으로 둥글고 긴 형태를 만든다.
2) 전체적인 둥근 표면은 거친 40방의 손사포로 마무리하고 양각의 부분에는 고운손사포로 포인트를 주어 마무리 한다.
3) 구멍으로 보이는 머리 부분은 잔정다듬 한다.

형태는 아이가 모체에서 탄생하는 과정으로 산도를 통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외형은 이미 팽창할 데로 팽창된 관(管)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긴장감을 주기위해 정적인 정다듬보다는 거친 40방 사포로 마무리 하였다. 산도의 출구에는 일반적으로 출산 시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아이의 머리카락이다.

‘긴장된 순간’ 아직 바깥 빛을 보기직전 어머니의 산도에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랜 잉태의 시간을 통해 이제 밖으로 막 탄생하려는 태아를 표현했다.
임신의 긴 과정을 생각한다면 출산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고의 고통을 다시 태어남에 비유하듯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체험은 모성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아이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어주는 연결이 되기도 한다. 모체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더욱 극진한 모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 작품은 산고의 고통을 떠올리며 지금의 아이와 나의 애착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서 출발한 작품이다. 출산의 긴장감과 고통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

【작품3】 나와 또 다른 나Ⅱ, 120×320×160mm, 대리석, 2007

【작품3】 나와 또 다른 나 Ⅱ

크　　기 : 120×320×160mm
재　　료 : 대리석
제작년도 : 2007
제작기법 : 1)원하는 돌의 형태를 찾는다.
2)다이아몬드 톱으로 석재를 절단한 후 에어툴로 기본적인 형태를 조각한다.
3) 잔정다듬으로 터치를 주고 중요한 부분을 손사포로 연마하여 포인트 주어 마무리한다.

앉아있는 어머니(본인)의 형태가 있고 그 머리에서 아이의 머리와 사지가 뻗어 나오는 형상이다.
태아와 모체가 육체적으로 분리된 출산 후의 이야기 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출산되어 밖으로 나온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늘 존재한다.
부동의 자세로 앉아있는 나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머릿속이 내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언제나 아이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출산이후 어느 장소를 가던지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항상 아이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머리는 의식이 있으며 신체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머리에 아이의 형태를 담아내므로 언제나 아이를 우위에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4】 다시 일어서자, 220×300×190mm, 180×200×170mm, 대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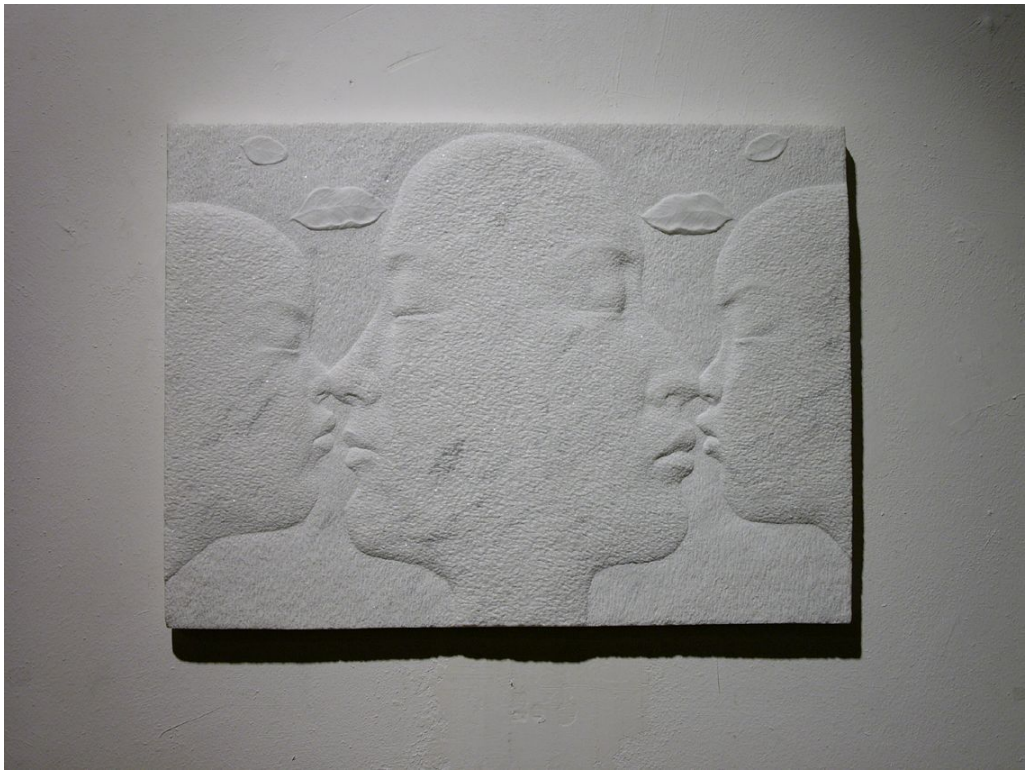
【작품4】 다시 일어서자

크　　기 : 220×300×190mm, 180×200×170mm
재　　료 : 대리석
제작년도 : 2005, 2007
제작기법 : 1) 다이아몬드 톱으로 둥근 형태를 만든다.
2) 얼굴부위는 잔정 다듬으로 마감하고 중요한 부위는 손사포로 포인트를 준다.
3)전체적인 둥근 형태는 손사포로 마무리한다.

작품의 형태는 유아용 장난감인 오뚝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오뚝이는 이미 그것이 가진 기능 즉, 밑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선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다.
또한 오뚝이가 가진 구(球)의 형태는 조형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동시에 불안정한 동적인 형태로 조형이론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도형이다. 본인에게 오뚝이가 가진 구의 형태는 하나의 점이 확장되어 나타난 군더더기 없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본인의 하루 일과를 지배하는 것은 육아였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행복한 일이었지만, 작업에의 열정을 가진 본인은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작업에의 동기와 주제를 찾고 작품으로서의 변화를 갖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완벽한 형태라고 일컬어지는 구의 형태와 언제나 중심을 잡고 서있는 특성을 가진 오뚝이에 본인과 아이의 얼굴을 담아 서로가 개개인의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어떤 어려움이나 압력에도 언제나 본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자신의 의지를 담아 작품화했다

【작품5】 나와 또 다른 나의 여정, 480×350×20mm, 대리석, 2007



【작품5】 나와 또 다른 나의 여정

크　　기 :　480×350×20mm
재　　료 : 대리석
제작연도 : 2007
제작기법 : 다이아몬드 톱으로 양각을 조각한 후 잔정 다듬으로 마감한다.

여성으로의 삶과 모성에 대한 이미지를 아이-나-어머니-아이 에 이르는 연속과 반복의 이미지를 담아 부조로서 데칼코마니 기법을 응용해 표현한 작품이다.

나와 딸아이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모델이 된 작품이다. 한국사회에서 육아는 대부분 여성에게 책임 지워지고 나도 육아와 함께 대학원 생활과 작품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 아이를 돌보아 주던 양육자는 나의 어머니였다.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 어머니의 도움이 컸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내 딸 아이도 훗날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일을 하는 나와 같은 자리에 와 있을 것이며 나 또한 내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연상을 해 볼 수 있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 삶의 연결이 작품으로 나타난 것으로 아이와 나, 또 나의 어머니에게로 이어지는 모성의 의미와 역할 등을 반복과 연속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자했다.

Ⅲ. 결 론

‘모성(母性)’이라는 주제는 작품으로 끊임없이 표현되어져 왔다. 염원과 기원으로 제작된 여신의 모습에서부터 더 이상의 사회적 관념으로 만들어진 어머니상이 아닌 현대에까지 모성은 조형작품 제작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인 또한 모성에 대한 경험들이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보존과 또 그 생명과 삶을 같이하는 어머니로서의 심상이 작품화되었다. 본인에게 모성의 의미는 끊임없는 아이의 생각과 그로 인하여 삶의 중심이 아이에게로 옮겨졌다고 느껴질 만큼 본인 삶의 지배적인 이미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심상으로 표현된 작품의 형태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태아가 자라며 이를 보호하는 공간인 비가시적인 자궁의 형태를 작품에서 유기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둘째, 여성의 신체를 단순화 시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셋째,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석재에서 그 형태를 가져왔다. 이는 모성의 경험을 통하여 작품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본 연구는 모성을 형상화한 본인 작품의 조형적인 표현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본인작품의 이론적 체계를 찾아 반성하고 되짚어 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작업에 밑거름이 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나아가 다각적인 형태와 재료의 탐구에 매진하여 본인만의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외국문헌

Flynn, Tom, 김애현 譯,「조각에 나타난 몸」, 예경, 2000,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譯,「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강만식外4명,「현대생물학」, 교학연구사, 1988

A.jaffe, 이희숙译 「예술과 상징」, 열화당, 1981

이수균,「몸과 미술의 역사」,『몸과 미술』,이대기호학연구소 엮음,
이화여대출판부, 1999,

Kandinsky, 권영필 譯,「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Wilkinson, Alan, 「Henry moore Writing and conversation」, London:
Lund Humphires, 2002,

Marie-Laure Bernac, Louise Brougeois (Flammarion, 1996)

학술지,논문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여성과 사회』,1995,6호

이열, 「신체를 통한 자아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2002

김경희, 「조각을 통한 공포와 복원의 힘으로서의 모성연구」, 홍익대학교 조소과, 2007

김경희, 「한국 현대소설의 모성성 연구」, 조선대학교 국어국문과, 2005

웹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도판목록

1)<뷜렌도르프의 비너스>,작가미상, 기원전 30,000년-25,000년경.

2)<로마의 피에타>, 미켈란젤로, 1498-1499

3)<Large Reclining Figure>, 헨리무어, 1984

<Mother and Chil-Block Seat>, 헨리무어, 1983-1984

4)<무제untitled>, 루이스 부르주아, 1941

5)<나는 한다 I Do>, <안한다. I Undo>, <다시 한다 I Redo>,

루이스 부르주아, 2000

6)<암여우 She-Fox>, 루이스 부르주아,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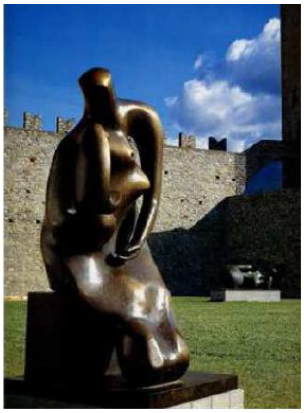
7)<거미 Spider>, 루이스 부르주아, 1996

<도판>

도판1

도판2

도판3



도판4

도판5

도판6

도판7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l Expression For Maternity

-Centering around My Work-

Lee, Hye Young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st expresses his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through sculptural language as well as plays the role to have the human beings inspired by his work,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each other and develop themselves continuously.

My work can be understood as an interpretation on the birth and maternity after pregnancy and delivery of my daughter. I've got a feeling of awe after being pregnant and this feeling was transformed into maternity with bring up her. Over this time, I was able to carve my strong maternal instinct into my work.

Emotion for the maternity has been represented as organic shapes through female's body and I've interpreted these with my own point of view metaphorically.

In addition, subject of my work is 'Stone' and I have expressed the touch of lump, weight and minute description with this material.

I'm eager to study the method of sculptural expression through this research on the modern artists and my own works.

This thesis consists of three main chapters.

In chapter one, I have showed the reason why I'd like to describe maternity in my works and the theme and direction of my study.

In chapter two, I've explained the history of maternity in the art's literatures and the detailed methods of respective era for the expression of maternity. Moreover, I have found two examples of these through the works of Henry Moore and Louise Bourgeois.

In addition, in this chapter I've analyzed my expression method based on the morphologic construction, and this formula has been applied to my own works as well.

In chapter three, I've summarized what I've written in this thesis and what I'd like to do in my career as a sculptor.